

# 여수 안산중, '순천으로 떠나는 바람길 소풍' 인문학기행

### 1학년 학생 대상으로 독서인문교육주간 운영 순천문화관과 국내 제1호 그림책도서관 방문

여수 안산중학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인문교육주간(2023.12.7.~2023.12.18.)을 지내며 국어교과시간을 중심으로 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으로 떠나는 바람길 소풍'이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기행을 지난 토요일(12월 16일)에 실시하였다.

독서인문교육주간동안 '온 책 읽기'를 통하여 인상깊은 문장을 적고, 관련된 문제를 내보는 활동과 독서감상문 쓰기, 소설을 시로 바꾸어보는 갈래 바꾸기, '독서 골든벨' 등 문학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2주에 걸쳐 가져왔다. 지난 16일에는 독서인문교육주간 활동의 정점으로 순천문화관과 전국 제1호 그림책도서관을 다녀왔다.

인문학기행 전 수업시간에 이 소풍에서 만날 작가들의 작품을 먼저 만나보는 작업으로

순천 출신 동화작가 고 정채봉님의 '오세암'으로 '온 책 읽기'활동을 했던 터라 순천문화관에서 만난 정채봉 관은 더욱 반가웠다. 한국의 안데르센이라 불리는 정채봉 작가는 갓난아기일 적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시와 소설로 적어 우리의 많은 동심을 뚫고 두드리는 감수성을 선물해주었다. '생명연습'서울, 1964년 겨울의 김승옥 작가도 순천 출신이어서 순천문화관에 정채봉 관과 더불어 김승옥 관에서 만날 수 있다. 그의 대표 소설 '무진기행'은 순천을 무대로 '생명연습'은 여수를 무대로 한 것이라는 문학해설가 선생님의 설명으로 다음 '온 책 읽기'는 '생명연습'을 추천해주었다.

올들어 가장 추워진 날, 순천만 습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경비행기만한 새들을 보며 '그림책도서관'으로 이동하였다. 순천그림책도서관은 전국 제1호 '그림책'

을 주제로 한 도서관으로 국내외 유명 그림책 작가의 기획 전시와 각종 체험, 인형극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연중 펼쳐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지하부터 2층 전시관까지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 펼쳐진 각종 그림책들은 학생들의 꿈틀거리는 상상력을 자극했다. 특히 기획 전시인 '발견, 그림책'은 그림책의 원화 전시회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림책으로만 만나던 작품들을 작가들이 손수 그렸던 원화 직접 만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었다. 학생들은 도슨트의 친절할 설명을 들으며 2층 전시회 공간 가득 펼쳐지는 그림이야기 속으로 폭 빠져들며 상상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듯했다.

또 다른 이벤트인 인형극 관람은 아직 걸음도 떼지 못하는 1세 아이와 환갑이 넘는 어른이 한 공간에 앉아 '달나라 토끼'를 관람하였다. 인형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갈수록 척박해지는 달나라의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관객 참여형 인형극으로 학생들은 토끼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며 평소와 다른 의욕적이고 유쾌한 몸짓으로 관객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해주었다.



마지막 체험장소인 '도그' 책방으로 이동할 때에는 여수에서는 보기 어려운 애기 주먹만한 눈송이가 포슬포슬 내려 학생들은 연신 손과 입을 벌리며 눈송이를 기쁘게 받아안았다.

'도그' 책방의 주인장님은 그림책과 함께한 20여년의 여정은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었다며 과정 과정에서 만났던 그림책을 담담하게 소개해주셨다. 그 중에서 특히 피터 H.

레이놀즈의 '점'은 내 안에 가뭇버린 나의 가능성을 만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미술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받은 그 감동의 순간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내연의 확장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고흥 녹동중,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

### 지역연계 미래학교 교육활동 '사람책3-찾아오는 체험활동'



고흥 녹동중학교(교장 최혜람)에서는 지난 1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역연계 미래학교 '사람책3-찾아오는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1학기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 지역사회 연

계프로그램 '사람책'은 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인을 초청하여 학생들과 직업에 대해, 인생에 대해, 여러가지 대화를 이어왔다.

이번 3차 '사람책' 행사는 그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전교생이 10개의 분야로 나누어 목공체험, 설치예술작품 만들기, 드론 날려보기, 뜨개질로 무릎 담개 완성하기, 자연물로 모빌만들기, 뮤지컬 장면 연출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해남 삼산초, '자녀와 함께 하는 별밤 캠프'

## 장흥서초, 클래식과 함께하는 행복힐링콘서트 개최

### 그룹 '이끈음' 앙상블 공연, 찾아오는 문화예술체험 운영

장흥서초등학교는 지난12일에 에듀퍼포밍 그룹인 '이끈음' 앙상블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플루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드럼으로 구성된 앙상블팀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클래식을 바탕으로한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이

끈음'의 공연은 아리랑 랩소디 외 10곡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행복힐링콘서트는 곡 해설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학생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 뽀로로, 주토피아 등의 ost와 더불어 유행하는 가요와 아리랑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클래식으로 편곡하여 선보였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 삼산초, 지난 16일 - 삼산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박정환)는 지난 12월 16일 토요일 저녁,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자녀와 함께 하는 별밤 캠프'를 개최했다. 이 특별한 행사에는 21가족과 5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능주고등학교의 박재곤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별자리 강의와 함께 간이천체관측 만들기 체험을 했던 이번 행사는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실제 천체관측은 어려웠지만, 별자리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천체 망원경 관측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삼산초등학교 박정환 학부모회장은 이번 행

사가 학부모회가 처음으로 외부 학생과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진행한 것으로,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를 얻어 감사드렸다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행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산초등학교(교장 박경이)는 매년 '자녀와 함께 하는 별밤 캠프'를 운영하며, 승마와 스노그 폴 등 다양한 여가 활동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행사는 학생들의 특별한 경험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